

중·고등학생의 영적 안녕감이 교사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신 건 호

강남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영적 안녕감이 학생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교사이미지 그리고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남부지역의 4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 324명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감을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으로 나누고 이 하위 요인들이 개인심리적 특성과 교사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적 안녕감과 개인심리적 특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중고등학생의 영성은 교사이미지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중고등학생의 영성은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종교경력이 높았고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빈도도 높았다. 또한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았다. 둘째,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인 불안과 낙관성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으나 상대적으로 실존적 안녕감이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이미지에서도 종교적 안녕감보다 실존적 안녕감이 의미 있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만족도에서도 종교적 안녕감보다 실존적 안녕감이 의미 있게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 연구의 결과와 논의하였다.

핵심주제어 : 영적 안녕감, 불안, 낙관성, 자기효능감, 교사이미지, 학교만족도

I. 서론

청소년은 그들의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군의 가치를 갖고 있다(Flanagan, 1997). 가치는 일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와 신념이다. 가치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종교, 정치, 교육 등과 같은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한다. 종교는 가치를 논의할 때 중심에 서있다. 그것은 종교가 가치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때로 종교는 가치 그자체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은 종교에 관심을 보이고, 성인들이 만든 종교단체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믿음을 소개하고 이들이 종교적 전통을 유지해 나가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사회는 주일학교, 가톨릭 교육, 종교적 전통의 전달,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화 시킨다(김현정 등, 2004). 이러한 가르침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 성인이 되며 자신들이 자랄 때 배운 종교적 교리를 받아들인다(Paloutzian, 2000). 예를 들면 25세까지 가톨릭이고 가톨릭으로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가톨릭 일 가능성이 크다.

종교적 변화와 재각성은 청소년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김현정 등, 2004). 종교적 문제는 청소년들에게서 중요하다(Paloutzian과 Santrock, 2000). 한 조사에서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95%가 신을 믿는다고 보고했다(Gallup과 Bezilla, 1992). 약 3/4의 청소년이 기도한다고 했고 약 1/2의 청소년이 지난 주 종교행사에 참석했다고 응답하였고, 역시 약 1/2의 청소년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청소년 97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사회계층이 낮은 청소년들 가운데 교회에 나가는 청소년들의 학점이 높았다(Regnerus, 2001). 종교집단에서는 학교에서 잘하는 것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격려할 뿐 아니라 긍정적 역할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김현정 등, 2004).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종교가 청소년이나 일반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소년들의 종교성과 관련되어 연구된 변인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기는 성적 행동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충동이나 성행동에 대한 종교성의 영향은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교회마다 가르침이 다양하고 차이가 있어서 종교적 교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종교기관은 혼전 성관계를 금지한다. 청소년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종교적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한 연구에서 교회에 자주 나가고 자신의 인생에서 종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교회에 자주 나가지 않고 인생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또래들 보다 성경험이 적었고, 혼전 성관계에 대해 덜 허용적 이었다(Thorton과 Camburn, 198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죄책감, 기도, 조직화된 종교 활동, 종교적 행복이 성경험이 더 적은 것과 관련이 있다.

종교와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지적된다. 행복과 종교와의 관계를 연

구한 연구는 행복감이 종교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종교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rgyle, 2000). Ellison 등(1989)은 종교적 활동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안녕감을 종교적 측면에서 다룬 영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해준다.

영적 차원을 다루는 연구는 과연 영성(spirituality) 또는 종교성(religiosity)이 개인의 적응 혹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로 다룬다. 몇몇의 연구는 융통성 없고 절대적인 종교성은 정서적·사회적 부적응을 낳지만(Hunsberger, Alisat, Pancer, & Pratt, 1996), 일반적으로 종교성은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Batson, Schoenrade, & Ventis, 1993). 보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영성이 건강 혹은 질병과 관련하여 건강 효과(Hathaway & Pargament, 1990), 병리 효과(Rosenstiel & Keefe, 1983), 혹은 건강과 병리 효과 모두(Bergin, 1983)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aloutzian과 Ellison(1982)은 영적 안녕의 구조를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들에 의하면 수직적 차원은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영적 안녕으로 종교적 안녕이라 칭하며 이 차원은 인간이 질병과 고통, 상실 등과 같은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에 비하여 수평적 차원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 및 목적에 관계되는 것으로 실존적 안녕이라고 칭하며, 이것은 인간의 믿음, 가치, 생활양식을 통하여 신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영적 안녕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영적 안녕을 가진 사람은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미래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까지 찾을 수 있다(Soeken과 Carson, 1987; Burkhardt, 1989). Ellison(1983)도 현재의 삶에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활기에 넘치고 목적적이며 충만한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영적인 안녕감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적인 조화와 평화를 이루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영적 안녕은 삶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와 가치감을 발견케 하며 신체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역할 변화를 주위 상황과 관계하여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아름다움, 진리 같은 가치들을 달성해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성은 수용을 의미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긍정적 사고를 강화시키며 내적 방어를 향상시키고 활성화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내적 치유와 안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Yang, 1999).

또 다른 영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를 보면 영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적인 조화와 평화, 감사와 만족, 타인과의 지지적인 관계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Voughan, 1986; Moberg, 1974).

영성을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으로 나눈 Ellison과 Paloutzian(1982)은 영성과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영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은실(2003)의 연구는 영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삶의 목적과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었다. 또한 영적 안녕감과 청소년의 자살의도가 역상관을 보여 영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살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실, 조향숙, 송양숙과 강성년, 2003). 적응유연성과 영적 안녕감을 다룬 박지아 등(2003)의 연구는 유능한 청소년일수록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이 높았고 영적 안녕감은 부모와의 애착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청소년의 영적안녕감과 불안, 그리고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은정(2005)의 결과는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점수가 낮았으며 또한 종교적 안녕이 높을수록 우울점수가 낮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은주(2006)의 연구는 영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우울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실존적 안녕감이 종교적 안녕감보다 우울지수와 유의하게 부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적응이나 학교생활에 영적 안녕감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청소년의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불안이나 우울같은 부적인 감정을 잘 통제하고 희망이나 낙관성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적응 또한 청소년에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학교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을 제기하였다. 영적 안녕감은 앞서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청소년의 적응과 학교생활에 주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지만 선행연구들의 시사점 중에 하나는 영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적응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감을 2가지 하위요인 즉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으로 구분하여 이 변인들이 학생들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개인적 배경과 불안, 낙관성,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상정하여 영적 안녕감이 주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교사이미지각과 학교에 대한 만족도지각으로 구분하여 종교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이 주는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적안녕감과 개인 심리적 특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고등학생의 영성은 교사이미지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3. 중고등학생의 영성은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의 성남시와 용인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3개 중학교 2학년 학생 180명과 3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은 반별로 표집 되어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지에 집단적으로 답하였다. 대상자 중 각 문항의 응답에서 무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를 제외하여 실제 분석대상은 중학생 160명, 고등학생 164명으로 전체 324명이었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성별에 따른 분석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학교와 성별 빈도(%)

학 교	성 별	빈 도
중학생	남	76
	여	84
	전체	160
고등학생	남	78
	여	86
	전체	164

2. 조사도구의 측정

1) 영성의 측정

영적 안녕척도는 Paloutzian과 Ellison(1982)에 의해 개발된 영적 안녕척도(spiritual well-being)에 의해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직적 차원인 종교적 안녕과 수평적 차원인 실존적 안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안녕감을 나타내는 종교적 안녕척도와 삶의 목적과 관계되는 실존적 안녕감을 나타내고 실존적 안녕척도로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리컷트식의 6점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강연정(2007)은 내적 합치도 계수를 구한 결과 73-76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기초로 하여 내적 합치도를 계산한 결과 종교적 안녕감은 $\alpha=.9117$, 실존적 안녕감은 $\alpha=.7829$ 로 나타났다.

2) 학생의 개인·심리적 특성의 측정

측정된 개인·심리적 특성은 크게 개인적 배경과 심리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적 배경은 성별, 학년, 나이, 종교, 종교경력, 종교참여빈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지위 등 이었다. 이 중 학업성적은 매우 우수하다. (5)에서 매우 부족하다. (1)의 5점 척도에

서 측정되었고,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매우 풍족하다. (5)에서 매우 어렵다. (1)의 5점 척도에서 측정되었다. 종교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48.1%인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천주교 신자였으며 무교나 기타 종교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대상자의 51.9%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은 불안과 낙관, 그리고 일반적 자기 효능감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불안측정은 김정택(1978)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대상으로 신뢰도 계수로 추정된 Cronbach $\alpha=.88$ 이다. 낙관성 척도는 개인의 낙관주의적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Scheier와 Carver(1985)가 개발한 척도에 기초한 김주신(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대상에서 Cronbach α 로 추정된 신뢰도 계수는 .81이다. 사용된 효능감 척도는 차정은(1996)과 김아영(1997)이 개발하고 수정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대상에서 Cronbach α 로 추정된 신뢰도 계수는 .78이다.

3) 교사이미지와 학교에 대한 만족도

교사에 대한 이미지의 측정을 위해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Osgood 등(1957)의 의미미분척도에 근거하여 교사에 대한 인상을 능력, 평가, 활동의 3차원에서 측정하고자 각 차원에 3문항을 배정하였다. 이 문항은 최명선 등(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이 때 척도는 양극적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계산한 Cronbach α 는 능력차원에서 $\alpha=.88$ 이고, 활동차원에서 $\alpha=.86$, 평가차원에서 $\alpha=.82$ 로 나타났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와 학원에 대한 일반만족도, 시설만족도, 친구만족도, 교사만족도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이 측정척도는 문은식(2001)과 강성만(2005)이 사용한 질문지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대상에서 신뢰도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계산한 Cronbach $\alpha=.82$ 이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변인 간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영성을 선행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는 영성과 학생의 개인적 변인간의 관계, 영성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그리고 교사에 이미지 지각과 학교만족도 지각으로 나누어서 제시되었다.

1. 영성과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

중·고등학생의 영성과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중·고등학생의 영성과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

구 분	나이	종교경력	종교빈도	학업성적	경제지위
종교적 안녕	-.012	.184*	.504**	-.039	-.043
실존적 안녕	-.053	-.202*	.043	.219**	.124*

**p<.01, *p<.05.

표에서 보면 종교적 안녕은 종교경력과 종교참여빈도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실존적 안녕은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지위와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그리고 종교경력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종교적 안녕은 종교경력과 종교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높지만 학업성적이나 학생들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실존적 안녕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았고, 종교경력이 낮을수록 실존적 안녕감이 높았다.

2. 영성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중·고등학생의 영성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면 종교적 안녕은 불안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자기효능감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실존적 안녕은 불안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그리고 낙관성과 자기효능감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종교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고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실존적 안녕감이 종교적 안녕감보다 불안과 낙관성,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더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성과 교사이미지와와의 관계

중·고등학생의 영성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영성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r)

구 분	불안	낙관성	자기효능감
종교적 안녕	-.174**	.013	.155**
실존적 안녕	-.440**	.577**	.537**

**p<.01, *p<.05.

〈표 4〉 영성과 교사이미지와와의 상관(r)

구 분	교사활동 이미지	교사능력 이미지	교사평가 이미지
종교적 안녕	.100	.162**	.106
실존적 안녕	.318**	.289**	.327**

**p<.01, *p<.05.

표에서 보면 종교적 안녕은 교사이미지 중 능력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존적 안녕은 교사활동, 능력, 그리고 평가이미지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종교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학교의 교사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존적 안녕이 높을수록 교사의 활동과 능력 이미지를 높게 지각하며 교사의 평가이미지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이미지와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종교적 안녕감보다 실존적 안녕감이 교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성과 학교만족도와의 관계

중·고등학생의 영성과 학교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영성과 학교만족도와의 상관관계(r)

구 분	학교전반 만족도	학교시설 만족도	학교친구 만족도	교사 만족도
종교적 안녕	.069	.186**	-.051	.093
실존적 안녕	.446**	.182**	.407**	.346**

**p<.01, *p<.05.

표에서 보면 종교적 안녕은 학교시설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변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실존적 안녕은 학교전반

만족도, 교사만족도, 시설만족도, 친구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학교와 교사 그리고 친구와 학교시설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실존적 안녕감이 종교적 안녕감보다 학교만족도, 교사만족도, 친구만족도 그리고 학교시설만족도에 더 유의한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적 안녕감을 2가지 하위요인 즉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으로 구분하여 이 변인들이 학생들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영적 안녕감과 개인 심리적 특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중고등학생의 영성은 교사 이미지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중고등학생의 영성은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종교경력이 높았고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빈도도 높았다. 또한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았다.

둘째,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인 불안과 낙관성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으나 상대적으로 실존적 안녕감이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이미지에서도 종교적 안녕감보다 실존적 안녕감이 의미 있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교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학교만족도에서도 종교적 안녕감보다 실존적 안녕감이 의미 있게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교사만족도와 학교만족도 그리고 친구만족도와 학교시설만족도도 높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첫째, 종교적 안녕감은 학생들의 종교적 참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종교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은정, 2006)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실존적 안녕감은 종교적 안녕감과 달리 종교적 참여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실존적 안녕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Regnerus(200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인 불안과 낙관성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도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실 등, 2004; 김은정, 2006; 강은실, 2003). 이러한 결과는 영적 안녕감이 학

생들의 심리적 적응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여 준다.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을 구분하여 보았을 때 실존적 안녕감이 상대적으로 불안과 낙관성,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다. 이 결과는 영적 안녕감을 연구할 때 2요인을 단순히 합하여 영적 안녕감의 지표로 삼는 경우에는 그 해석이 좀 더 조심스럽게 이루어 질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셋째, 교사의 이미지에서도 종교적 안녕감보다 실존적 안녕감이 의미 있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교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은 학교에서 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의 원천이 교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객관적인 교사의 능력이나 활동에 대한 평가보다 주관적인 평가가 학습장면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

넷째,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교사만족도와 학교만족도 그리고 친구만족도와 학교시설만족도도 높다. 그러나 종교적 안녕감은 이러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영적 안녕감이 학교생활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지아, 2002; 서경현 등, 2005; 허현나, 2002).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생활과 교사이미지를 측정하여 직접 이러한 관계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먼저 영적 안녕감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적 안녕감의 발달이 종교적 가치나 종교적 활동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결론은 종교적 안녕감보다 실존적 안녕감이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나 학교생활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영적 안녕감의 하위요소인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효과가 실존적 안녕감만의 효과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결론은 또 다른 후속 연구를 요구한다.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 특성이나 학교만족이 선행변인이고 영적 안녕감이 후행변인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주장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영적 안녕감이 개인 심리적 특성이나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설명일 수 있다는 가정을 취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좀 더 많은 결과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화에 제약 받는다. 무엇보다도 표집된 중고등학생 집단이 수도권 일부만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넓은 범위의 대상자들을 표집하여 연구하는 것이 일반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 추후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교사 이미지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혀내는데 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성만,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개선방안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강연정, 「영적 안녕과 관계 성숙을 위한 기독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L. J. Crabb과 H. Clinebell의 기독교 상담이론을 중심으로」(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강은실, 「청소년의 삶의 목적, 영적안녕,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정신간호학회지』 제 12권 제 3호, 2003
- 강은실, 송양숙, 조향숙, 강성년. 「청소년의 자살의도, 우울, 영적 안녕과의 관계」『전인간 호과학연구소 학술모음집』 제 2권, 2003
- 김아영,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교육심리연구』 Vol. 12, No. 2, 1997
- 김은정, 「청소년의 종교성과 영적 안녕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정택,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김현정, 박영신, 방희정, 유성경, 이계원, 정명숙, 조아미, 최윤미, 『청년심리학』, 서울: 박학사, 2004
- 문은식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박지아, 「적응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간의 관계: 적응유연 청소년, 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의 비교」(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지아, 유성경,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 간의 관계」『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 15, No. 4, 2003
- 서경현, 전겸구,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 9, No. 2, 2004
- 장은주, 「대학생의 영성, 감성, 우울과의 상관관계 연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차정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심리연구』 No. 34: 19-31 1996.
- 최명선, 김영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교사, 친구 이미지 연구」『청소년학 연구』 Vol 12, No. 2: 229-249 2005.
- 허현나,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의 안녕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카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Argyle, M (2000). Psychology and religion: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 Batson, C. D., Schoenrade, P., & Ventis, W. L. (1993). Religion and individual: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in, A. E. (1983).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70-184
- Burkhardt, M. A. (1989). *Spirituality: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1(3), 69-77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40
- Ellison, C. G., Gay, D. A., & Glass, T. A. (1989). *Does religious commitment contribute to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Social Forces*, 68, 100-123.
- Ellison, C. G., & Paloutzian, R. F. (1978). *Assessing quality of life: Spiritual well-be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tonto, August, 29.
- Flanagan, C. (1997). *Youth, Family Values, and Civil Socie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ton. DC.
- Gallup, G. W., & Bezilla, R. (1992). *The Religious Life of Young Americans*. Princeton, NJ: Gallup Institute.
- Hathaway, W. L. & Pargament, T. I. (1990). *Intrinsic Religiousness, Religious Coping, and Psychosocial Competen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423-441
- Hunsberger, B., Alisat, S., Pancer, S. M., & Pratt, M. (1996).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 39-49.
- Moberg, D. O. (1974). Spiritual well-being in late life. In J. F. Gubrium(Ed.), *Late life: Communities and environment policy*. Springfield, IL: Chaeles C. Thomas.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 Paloutzian, R. (2000). *Invitation to The Psychology of Religion*(3rd ed.). Boston: Allyn & Bacon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D. Perman(Eds). *Loneliness: a sourec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244-236). New York; John Wilet & Sons.
- Paloutzian, R. F., & Santrock, J. W. (2000). *The Psychology of Religion*. In J. W. Santrock *Psychology*(6th ed.). New York: McGraw-Hill
- Regnerus, M. D. (2001). *Making The Grade: The Influence of Religion up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Youth in Disadvantaged Communities*. Report 01-04. Center for Research on Religion and Urban Civil Socie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 Rosenstiel, A. K., & Keefe, F. J. (1983). The Use of Coping Strategies in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Relationship to Patient Characteristics and Current Adjustment. *Nursing Studies*, 32(5), 457-468
- Scheier, M. F., & Carver, C. S.,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1985.
- Soeken, K. L. & Carson (1987). *Responding to The Spiritual Needs of The Chronically Ill*.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2(3), 603-611
- Thorton, A., & Camburn, D. (1989). Religious participation and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 171-184
- Voughan, F. (1986). *The inward arc: Healing and wholeness in psychotherapy and spirituality*. Boston, New Science Library.
- Yang, P. S. (1999). A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Self Concept, Depression of The Middle Aged Women. Dept of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원고접수: 2008년 1월 31일 1차심사: 2월 5일 게재승인일: 2월 15일

연구자 소개: 신건호

① 전공: 교육심리와 인간발달/ 소속: 강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② 관심영역: 태도와 가치관의 발달

③ 주요논저: 「아동발달」,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청소년의 자아개념, 불안, 희망과 낙관성이 종교정향 발달에 미치는 효과」 등

④ E-mail: khshin@kangnam.ac.kr

Abstract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on
individualistic-psychological traits and school satisfaction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hin, keonho

Kangnam University

This study assumed that spiritual well-being made an impact upon individualistic-psychological traits and school satisfactions of students 154 male students and 170 female students in four middle and high school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had relatively stronger correlation with religious activities, but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had stronger correlation with school achievements. Second,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were more correlated with anxiety, optimism, and self-efficacy than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Third,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had stronger correlation with teacher's image than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Fourth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were more correlated with school satisfactions than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To put the results together,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of students have relatively stronger impact on their individualistic-psychological traits and school satisfactions

Key words : spiritual well-being, anxiety, optimism, self-efficacy, teacher's image, school satisfaction